

거침없는 추신수, 가을걷이 풍성



시즌 21호포 폭발... 개인 최다 홈런·타점·도루기록 경신

인디언 부대의 '대표 추장'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자신의 한 시즌 최다 홈런, 타점, 도루 기록을 1년 만에 모조리 갈아치우고 풍성한 가을걷이를 눈앞에 뒀다. 추신수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연속경기로 치러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첫 경기에서 5회 투런포를 쏘아 올려 시즌 21번째 홈런을 터뜨렸고 타점도 2개를 보태 88개로 늘렸다. 지난 20일 캔자스시티와 경기에서 호타준족의 상징인 20홈런과 20도루를 2년 연속 달성한 추신수는 이를 전 디트로이트와 경기에서는 시즌 22번째 도루를 기록하고 지난해 기록한 한 시즌 최다도루(21개)를 가볍게 넘기는 등 연일 신기록 행진 중이다. 전반기 막판 수비를 하다 오른손 엄지를 다쳐 한 달 가까이 빠졌음에도 금세 기량을

회복했고 최고기록을 경신하면서 메이저리그에서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블루칩'으로 자리매김했다. 작년 성적과 비교할 때 추신수가 모자란 건 안타뿐이다. 추신수는 이날까지 162개의 안타를 터뜨렸다. 남은 3경기에서 지난해 때린 175안타 이상을 기록하기엔 역부족이나 부상 공백 탓에 경기 출장 수가 모자랐을 뿐 삼진(151→118)은 줄고 볼넷(78→82)은 늘어 공격 전방에서 더 무서운 타자로 진화했다. 추신수의 남은 목표는 타율 3할을 2년 연속 달성하는 것이다. 더불어 2차전에서 4연타석 삼진을 당해 0.298로 주춤했지만 3할 언저리를 계속 땀뚝고 잇기에 달성 가능성은 크다. 추신수의 성적 중 가장 시선을 끄는 건 동

료 타자들의 연쇄 부상으로 사실상 홈런 타선을 지켰음에도 타점이 지난해보다 불었다는 사실이다. 추신수는 누상에 주자가 나가면 더욱 힘이 나는 전형적인 '해결사'다. 주자가 없을 때 추신수의 타율은 0.291(309타수 90안타)로 시즌 타율보다 낮지만 주자가 있으면 0.308(234타수72안타)로 높아진다. 21개 홈런 중 솔로포가 10개고 주자가 있을 때 나온 게 11개다. 득점권 타율은 0.311(132타수41안타)로 더 높고 2사 후 득점권 타율은 0.322(59타수 19안타)까지 치솟는다. 88타점 중 득점권에서 나온 타점이 73%인 64개다. 특히 만루에서 타율은 무려 0.500(12타수 6안타)으로 그랜드슬램도 2개를 때렸고 타점을 18개나 뽑아냈다. 추신수의 타점 본능이 점점 오르면서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연합뉴스



사시사철 빙벽 즐기세요 코오롱스포츠가 지난달 3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아웃도어 매장 및 체험, 교육과 휴식을 아우르는 토틸 아웃도어 문화 공간 '코오롱등산학교 교육센터'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 교육센터 내에는 세계 최고 높이(20m)의 실내 인공 빙벽장이 마련돼 빙벽 마니아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민지 등 A급선수 2000만원

대한축구협회, U17 여자대표에 총 4억9000만원 격려금

한국축구 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대회에서 우승한 17세 이하(U-17) 여자 대표팀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총 4억9000만원의 격려금을 받는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30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최근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막을 내린 2010 FIFA U-17 여자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대표팀에 총 4억9천만원의 격려금을 주기로 했다. 지난 8월 독일에서 열린 FIFA 20세 이하(U-20) 여자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하고 U-20 대표팀이 받은 2억4천700만원의 두 배다. 한국축구사를 새로 쓴 최측주 U-17 대표팀 감독은 3000만원, 김윤권, 김태희, 박영수 코치는 각각 2500만원을 받는다. 21명의 선수에게는 출전 경기 수와 팀 기여도에 따라 A, B등급으로 분류해 장학금 명목으로 차등 지급된다. 한국 축구선수로는 처음으로 FIFA 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 격인 골든볼과 득점상인

골든부트를 거머쥔 공격수 여민지(함안대산고)를 비롯해 주장 김아름(포항여전자고) 등 A등급 선수 14명은 2000만원을, B등급 선수 7명은 1500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U-20 여자대표팀의 경우 최인철 감독이 2천만원, 코치가 1500만원을 받았고, 선수들에게는 A등급 1천만원과 B등급 600만원이 돌아갔다. U-17 여자 대표 선수들은 대한축구협회 장학금 외에도 협회 공식 후원사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역시 장학금 명목으로 1인당 300만 원을 받았다. 한국여자축구연맹도 대표팀에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내놓았다. 한편 협회는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우승 시 감독 1억원, 수석코치 8000만원, 코치 7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선수에게는 A급 6000만원, B급 4000만원, C급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 FIFA로부터 2013년 컨페더레이션스컵 참가 배당금으로 140만달러(한화 16억원·2009년 대회 기준)를 받게 되는데, 이 금액 대부분을 아시안컵 우승 포상금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FA컵 결승진출 황선홍 감독 12년만에 '황새 세리머니'

부산 아이파크의 황선홍 감독이 '스승' 박항서 감독의 전남 드래곤즈를 꺾고 약속된 승리의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사진> 지난달 29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FA컵 준결승전에서 부산이 4번째 우승에 도전했던 전남을 3-2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승장 황선홍 감독은 예고했던 '황새 세리머니'를 재연해 눈길을 끌었다. 황 감독은 앞선 FA컵 미디어데이에서 "승리를 하면 서포터들이 원하는 세리머니를 하겠다"고 밝혔고, 박항서 감독은 "2002년 월드컵 당시엔 황선홍 감독이 꿀을 넣고 안겼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황선홍 감독 꿀에 달려가 안기겠다"고 맞붙을 뒀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황 감독의 공약에 따라 부산팬들은 홈페이지에 레슬링 기술 시전, 재계약서에 사인, 깜짝 댄스 등의 세리머니를 요청했고, 결국 감독의 주점으로 '황새 세리머니'가 선정됐다. '황새 세리머니'는 1998년 4월1일 열린 한일전에서 선보인 것으로 황 감독은 1-1로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에서 멋진 발리 슈트를 선보이며 한국의 극적인 세리머니를 이끌었다. 골을 성공시킨 뒤 황 감독은 두 팔을 펼치고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1998년 한일전의 재연이나, 2002 월드컵의 재연이나'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FA컵 준결승은 결국 '황새 세리머니'로 마무리됐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리미어리그 저평가선수 이청용 1위·박지성 10위 이 가운데 1위는 이청용이었다. 이 잡지는 이청용에 대해 "게리 맥스 감독이 불탄 감독으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불탄 팬들에게는 적어도 이청용을 영입한 사령탑으로 감사를 받을 만하다"며 "이청용은 첫 번째 시즌부터 '불탄 올해의 선수'와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올해의 신인'을 차지하는 등 새로운 문화에 뛰어남에 적응했다"고 칭찬했다. 포포투는 또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1호인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10번째 '저평가 선수'로 선정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SCREEN GOLF

두암골프존

SEASON EVENT

2010년 11월30일까지 진행합니다.

18홀 13,000원

(오전12시 티업까지 10,000원)

- season event는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 오전 요금은 12:00시까지 티업시에만 적용합니다.
- 유료코스 이용시에는 고객님께서 2,000원을 부담합니다.
- 2010년 12월 01일부터는 정상요금으로 포인트 적립해드립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최고시설 5개홀
 전자식 스윙플레이트
 윈손타석(와이드 화면) 구비

단체경기(8~10인)를 위한 OPEN형 룸
 골프채, 신발, 장 무료대여
 오전은 12시 티업까지 적용(토,일제외)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니아 고객님을 위한 넉넉한 라커(무료)

떨트의 느낌을 그대로...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골프연습장

만나는 순간,
 여러분께 리더의 자부심을 약속합니다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순환도로쪽 70m [해탈 5층]
예약 234-9999

광주·전남 기능장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초슬림!! **가격판피 50만원**

스킬과 맘이 초극세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빌